INTERNATIONAL SAMBO FEDERATION

INTERNATIONAL SAMBO FEDERATION
POSTPONED ALL COMPETITIONS
DUE TO COVID-19 PANDEMIC

9월 7일 페어플레이의 날로 지정, 삼보도 동참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가 2020년부터 9월 7일을 페어플레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기로 하였다. 9월 7일에만 페어플레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념일에는 페어플레이의 정신을 더욱 부각시켜 홍보하는 목적이다.

삼보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 2016년 벨라루스 선수 스테판 포포프가 삼보 선수로는 최초로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다. 앞서 바쿠에서 열린 유러피안 게임 결승전에서 혼자 매트에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부상당한 상대 선수를 등에 업고 같이 퇴장하였다.

https://youtu.be/mmgbCZKqPXc

이 행동은 세계적으로 큰 귀감을 주었다. 동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였고 2015년 민스크에서 열린 유럽 언론 총회에서 삼보와 피아스 홍보 동영상에도 사용되었다. 총회에서 피아스, 벨라

루스 체육회 및 벨라루스 체육언론협회가 스테판 포포프를 페어플레이 수상 후보 등록을 신청하였다.



"페어플레이 상을 받은 후 벨라루스 국민과 스포츠 커뮤니티 전체의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으로 다른 국내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보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더 엄격하게 페어플레이를 준수할 것입니다. 인생만사에 페어플레이의 잣대를 적용합니다." 라고 스테판 포포프 선수가 피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페어플레이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 페어플레이 위원회 예뇨 카무티 회장은 "기념일 지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여 체육 연맹 및 협회, 국가체육회, 교육기관들이 지역별 기념 행사를 조직하면 국제 페어플레이의 날을 큰 축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올림픽 위원회, 유네스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학교스포츠연맹 및 여러 국제 기구들과 함께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주최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